

1년만에 만나는 광주시장·전남도지사...해묵은 갈등 풀까

오늘 상생발전위원회 재개 전라선 고속철·달빛내륙철도 등 대선 맞아 9개 상생과제 논의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촉구할 듯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년 만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문제와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 사·도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발표문을 통해 사·도민에게 알리고, 사·도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도지사과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공동협력과제(신규 9건, 기존 33건) 42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시간은 40분에 불과하지만, 양 사·도는 그동안 수차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온 만큼 협력과제에 대한 공동 목적지를 내는 방식으로 화합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사·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을 계획이며,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도는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문제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 주도의 이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이 수용 가능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 양 사·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는 '광주 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 맞춰 기반·편의시설 확충에 공동노력하고, 통합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과 지역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문에는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을 위한 국비 반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길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실시계획비 및 부지 매입비 44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 불용을 추진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와 함께 9대 신규 협력과제로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동협력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웨에이징 휴먼헬스케어벨트 조성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사업 공동 협력 ▲2038 하계야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공동협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 노력 등을 채택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 그동안 전남도와 실무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논의의 안건 등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구성돼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시장과 김 지사 취임 후에는 2018년 8월, 2019년 11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25건의 기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과제 8건을 발굴·논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본소득 정책 확산...국민 반대하면 강행 않겠다 김종인 존경하고 모시고 싶은 분...가끔 전화 드려”

이재명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든 정책 국민 의사가 가장 중요 조국 논란 진지하게 사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대표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反)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시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는 이날 국민일보 인터뷰 보도가 기본소득 철회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철회할 것이 아니다. 이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으로 반영돼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있는데 그게 기본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당연히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국민 상대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의 문제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할 때 실제 정책

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회적인 안건이었는데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일회적인 지원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으로 매우 유용하고 선별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제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지역화폐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재정지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5분의 1이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아주 소액으로 앞으로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주요 정책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책은 실현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에게 꼭 필요한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럴 때는 국민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면서 “정치인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한다든지 매우 혁명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강제

한다든지 또는 경제민주화를 선언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성남시장 시절)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할 때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며 “당에 계실 때는 저를 매우 아껴주신 분이시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도 자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정렬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선 4자대결, 윤석열 34%·이재명 33%

4개 기관 여론조사 당선 전망, 이 37%·윤 36% 정당 지지도 국힘·민주 동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이달 1일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34%, 이 후보 33%의 지지율을 얻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4%였다.

1주일새 윤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하고 이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가 37%로 윤 후보(36%)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가 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결과다.

비호감도에서는 이 후보 58%, 윤 후보 57%로 비슷한 편이었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포인트 하락했으나, 윤 후보는 1%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 동률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정 평가가 53%로 긍정 평가(41%)를 웃돌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39%)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년 청렴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일반부문)

광주교육의 날씨는 오늘도 청렴 :)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